

# the world leader of Noble Fibres

계절과 유행을 타지 않는 진정한 럭셔리 세계. 콜롬보의 거대한 공장을 둘러보고, 3대를 이어온 패밀리 기업의 단단한 브랜드 철학을 실감했다면 이 설명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울, 캐시미어 같은 친숙한 소재부터 비큐나, 과나코, 케말 헤어, 안지르 등의 생소한 소재까지. 콜롬보의 혁신과 기술이 만들어낸 이들 소재는 퀄리티와 가치는 물론, 우리에게 럭셔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이탈리아의 보르고세시아(Borgosesia)에서 만난 콜롬보의 노블 파이버 월드.

## 진정한 이탈리아인 럭셔리, 퀄리티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

콜롬보(Colombo)는 50년의 역사를 지닌 기업으로, 1960년대에 창업자 루이지 콜롬보(Luigi Colombo)가 경영한, 캐시미어, 울 같은 최상급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비롯되었다. 루이지 콜롬보는 창립자이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아티스트이자 폭넓은 시야로 노블 파이버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선도자이자 항해사이기도 했다. 기업가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유명 텍스타일 회사를 운영하던 삼촌의 손에서 성장했는데, 이는 그가 희귀한 프레스티지 소재에 관심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희귀한 소재들이 원단업체에서 가치 있는 니치 마켓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결국 캐시미어, 비큐나, 과나코, 케말 헤어 등의 소재를 개발, 혁신하는데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쳤다. 그가 늘 직원들에게 하던 얘기는 언제부터인가 콜롬보의 기업 철학이 되었다. "스레프들에게 얼마나 팔 것인지 물어보지 마라. 다만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을 좋아했는지를 궁금해해라. 1970년대, 2세대인 그의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합류하면서 콜롬보는 국제적 기업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어 각 분야 최상급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발로 콜롬보는 고급 소재의 원단 생산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앞선 기술을 보유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나갔다. 그리고 전 제품을 완벽한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로 생산해, 창업 당시의 이념인 퀄리티 중심의 기업 마인드를 유지하며 4백여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 "Values become culture, culture becomes quality"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생산 과정 전체를 하청 없이 본사 직원이 모두 다 맡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1~2곳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보르고세시아(Borgosesia) 본사에서 캐시미어, 밍크, 비큐나 같은 최고급 원사의 원단을 만들어 다른 회사에 제공하며, 여기서 조금 떨어진 잠페(Gherame) 지역에서는 이 원단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기성복을 선보이고 있다. 제작 과정은 총 9단계의 생산 공정과 18회의 중간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콜롬보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 또한 세계 희귀동물 보호 규정인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를 준수하기 위해 콜롬보는 1992년부터 비큐나, 과나코 등의 희귀 동물을 아르헨티나 농장에서 직접 사육해왔다. 이렇게 단명한 최고급 원단들을 콜롬보는 에르메스, 셀렌스 등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며 아틀리터리 브랜드들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 에르메스의 고장 루이 뒤마 회장은 자사 제품의 품질에 자부심을 드러내며 특별히 캐시미어 분야에서는 콜롬보 노블 파이버의 공이 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콜롬보 역시 뒤마 회장의 이 말이 어떤 말보다 감동적이고 뿌듯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콜롬보는 2000년대 들어 레브릭 프로덕션과 최상급 소재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한 High Class Soft Casual Wear'를 콘셉트로 하는 패션 레디투웨어 등 두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9월, 말라노의 비아 델라 스피가 33번지에 스토어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프리미엄 레디투웨어 브랜드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에르메스나 루이 비통처럼 가족의 전통 사업을 계승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꿈인 콜롬보 노블 파이버. 콜롬보의 3대 경영진은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들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했으며 결국 트레이디션과 모더니티가 결합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인 특유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품질 최우선의 장인 정신, 그리고 멈추지 않는 혁신과 개발. 이 럭셔리 브랜드의 앞

### Kale Jac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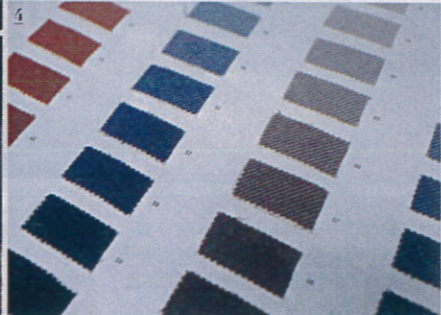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 럭셔리 브랜드 콜롬보의 프라미엄 라인인 케이트 제2호 시즌을 관통하는 스타디움(스타디움)이 아닌 이더럴로 미디어 길의 상급브레스드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있다. 최고급 캐시미어와 실크를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기품 있고 절제된 디자인이 풍부한 컬러와 아우라지 품격은 스타일을 제안한다. 특히 동영산 연구한 울과 보어의 염색 기법을 통해 구현한 우아한 색상의 컬러가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현재 한국에는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신라호텔 아카데미, 대구 대백플라자, 부산 롯데백화점 본점에 4개의 매장이 있다. 문의 02-3213-2303

### The Dream Factory & The Dream Fabrics

콜롬보는 전 세계 50여 곳에 분포한 사육지에서 동물이 털갈이를 할 때 획득되는 털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 캐시미어와 캐멀 헤어는 몽골 울린바토르 등지에서 구입하는데, 이 지역의 원사가 굉장히 가늘고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캐시미어(cashmere)는 인디아, 몽골, 중국,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서식하는 염소과의 포유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급 원사. 최상급으로 알려진 화이트 캐시미어를 비롯해 다양한 내추럴 컬러의 원사 중 콜롬보는 부드러운 솜털만 뽑아 직조한다.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모의 양이 5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희소성과 섬세한 수공의 공정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 높은 보온성과 편안함, 부드러운 질감과 우아한 드레이프성으로 '섬유의 다이아몬드'로 일컬어진다. 비큐나(vicuna)는 낙타과 동물 중 가장 작은 동물이며 볼리비아, 칠레, 페루에 걸친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생활한다. 적황색과 짙은 황갈색, 흰색의 긴 털이 다리 아래까지 늘어서는 초식동물로, 3년마다 털을 깎을 수 있어 양모 생산량이 적은 만큼 희소성은 최상급 소재로 알려져 있다. 비큐나는 현재에도 CITES로부터 엄격하게 보호받으며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 비큐나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양모는 3년간 250g에 불과해 연간 약 80g의 양모가 생산되는 셈이며 이는 캐시미어 염소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의 6분의 1 정도다. 과나코(guanaco) 역시 낙타과의 희귀 동물로 페루, 아르헨티나 등 주로 남미 지역에 서식한다. 과나코 섬유는 특수 사이링 기술로 레드 브라운 컬러의 가벼운 솜털만 채취해 가장 부드럽고 세련된 최상급 페브릭으로 생산된다. 콜롬보는 1990년대에 과나코의 원산지인 파타고니아에 이 동물을 방목하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진행한 이 프로젝트로 이 지역 과나코의 모질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타베트산 염소에서 추출한 밝은 색의 양지르(yangir)는 야생 산양의 일종으로,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양지르는 캐시미어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감과 자연스러운 금빛이 도는 솜털로 차세대 노블 파이버 원단 중에서도 최상급 소재로 꼽힌다. 콜롬보는 양지르 페브릭을 개발해 2011년 가을, 겨울 시즌, 패션 마켓에 최초로 이 새로운 프리미엄 페브릭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 콜롬보는 털을 얻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에는 15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 1년 기준으로 캐시미어는 3백 톤, 캐멜은 1백50톤, 양고라는 1백 톤, 비큐나는 2톤, 비즈네·어민·친질라는 3톤 정도 생산한다. 특별히 그중 개계 수 감소와 수요 증가로 멸종 위기 동물 목록에 오른 비큐나는 거래 제한을 위해 원단에 원산지표를 표기한다.



1 울린바토르의 비어 델라 스피가 33번지에 위치한 콜롬보의 메인 스토어. 하이 퀄리티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레드투웨어 브랜드인 만큼 고급스러운 소재의 아이템이 가득하다. 커다란 상품리테일의 커버 역시 캐시미어 소재. 2 콜롬보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고급 소재들을 이용해 보기가 힘들었던 다양한 컬러로 탄생시켰다. 3 신중한 리미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수직선으로 마무리하는 콜롬보의 레드투웨어 노트. 4 루이지 콜롬보 때부터 간직해온 생물 소위치. 이때는 콜롬보의 소중한 아카이브가 되었다. 5 콜롬보의 아카이브한 아카이브로 자리잡은 케이트 재킷의 스키퍼 모음. 캐시미어와 실크가 결합된 부드러운 소재감과 특수한 염색 기법으로 탄생한 컬러가 특징이다. 6 보르고세시아에 위치한 콜롬보의 방대한 공장 전경. 현재 보르고세시아와 캄페 두 곳의 생산 플랫폼에서 4백여 명의 직원이 연간 1만 8,000km 이상의 피아버를 생산하고 있다. 7 콜롬보의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컬러의 레드투웨어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2014 F/W 엔트 컬렉션 중에서.



### 가문의 열정, 기업의 책임감이 되다. 콜롬보의 CEO 로베르토 콜롬보와의 일일일담

어떻게 노블 파이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대학생 시절인 1970년대는 캐시미어가 지금의 비큐나처럼 고급스러운 소재였다. 아버지가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공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미래에는 원단의 고급화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때부터 노트에 원사 고급화 프로젝트라는 글자를 쓰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다. 1996년에는 러시아, 캐나다, 칠레 등 전 세계를 돌며 캐시미어를 대체할 것을 찾았다. 이때 동물의 털갈이 털을 이용해 고급 원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970년대 캐시미어처럼 지금은 비큐나가 최고급 원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래에는 어떤 소재가 최고급으로 취급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비큐나를 비롯해 알바노 낙타, 어린 등의 동물에서 채취한 최고급 소재는 이미 최상급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어떤 가공 기술력을 더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기존의 원사들과 어떻게 다른가? 고급 소재는 원재료를 어디서 구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캐시미어 같은 경우 얼마나 가늘고 긴가가 품질을 좌우한다. 동물의 특성상 출고 건조하면 털이 축축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동물의 털은 가늘다. 콜롬보는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몽골 알라산 지역에서 양질의 캐시미어를 구한다. 원사를 가공해 원단으로 만드는 과정도 특별하다. 캐시미어를 염색하기가 스판 소재를 합성해 신축성을 더하는 것 등은 이미 20~25년 전에 콜롬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보르고세시아와 캄페 지역으로 생산라인을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르고세시아에서는 원단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캄페 지역에서는 20년 전부터 애매한 케이트가 레드투웨어를 만들고 있다. 25년 전 회사에 합류한 케이트는 처음에 액세서리 디자인부터 시작해 지금의 레드투웨어까지 단계별로 성장했다. 베스트셀러인 케이트 재킷 역시 그녀의 이름을 딴 제품이다. 양질의 캐시미어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세 가지만 알려달라 좋은 제품은 광택과 입체감이 눈으로 느껴진다. 손으로 만졌다가 찔렀을 때 구멍이 잘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털이 잘 안 빠지는 제품을 골라야 세탁했을 때 변형이 덜하다. 홍콩, 도쿄, 서울에 이어 올해(2015년 기준) 중국에까지 사업을 확장한다고 들었다. 아시아 시장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급하게 서두르기는 안된다. 인본심을 가지고 1년에 2개 정도씩 매장을 열 생각이다. 패밀리 비즈니스로 자부심이 큰 만큼 큰 회사에 팔고 싶지는 않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도 역시 경제 위기가 왔지만 최고급 럭셔리 제품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제 많은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다. 마케팅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 STYLE CHOSUN (1)



### The world leader of Noble Fibres

True luxury goods are never affected by trend and season. After visiting the factory of COLOMBO, we could understand the brand philosophy of the family business on the succession of three generations. The fabrics COLOMBO has manufactured such as wool, cashmere, vicuna, guanaco, camels' hair, and yangir remind us of the meaning of Luxury. The world of COLOMBO Noble Fibres we met in Borgosesia, Italy.

### True Italian luxurious and high-quality global brand

COLOMBO has a fifty-year history, and the history started from the factory the founder, Luigi Colombo, established in 1960s. He was an artist, pioneer, and explorer with free soul and broad mind, and he traveled all around the world to find noble fibers. He was grown up by his uncle who was running a textile company, which was the reason why he got interested in prestige fabrics. He was sure that luxurious fabrics would be a niche market with high value, so he was devoted to developing new fabrics such as cashmere, vicuna, guanaco, and camels' hair. He always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should not ask the staff how much they would sell, but just should be curious about whether the customers would like their goods. In 1970s, as his sons was involved in the business, the business was expanded into a big company with a global volume. COLOMBO was increasing their brand value throughout innovative and advanced technology, and as producing all the products made in Italy, COLOMBO has been enlarged on the philosophy of their early stage of the foundation.

### **"Values become culture, culture becomes quality"**

There are only one or two companies in the world which produces all the products without outsourcing. COLOMBO Noble Fibres is one of them. The headquarters of COLOMBO (short for COLOMBO Noble Fibres) in Borgosesia produce the fabrics and provide them to other companies. In Ghemme, COLOMBO produces apparels with their fabrics. COLOMBO has 94 steps of manufacturing, and 18 inspections for perfect goods. COLOMBO itself manages and controls all the steps. Since 1992, COLOMBO has raised rare animals such as vicunas and guanacos in their own farms to observe the regulation of CIT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and has put marks-of-origin on their products for transaction restriction. COLOMBO has provided their prestige fabrics to the world famous companies such as Hermes, and Celine, and still has such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m. Casting back to the interview in 2007, the late Jean Louis Dumas at Hermes said that the quality of the cashmere garments and mufflers of Hermes are attributed to COLOMBO, and it was the most satisfying praise COLOMBO had ever received. Now COLOMBO has run two kinds of business; one is fabric production and

the other is ready-to-wear apparel business with their highest prestige valued fabrics. They started to announce their success for the apparel, opening a flag shop on 33<sup>rd</sup> Via Dellar Spiga street in Milano in 2010. They have concentrated on the promotion of their premium apparel with tradition and modernit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third generation has been devoted in making the highest-quality. It is a craftsmanship with Italian warmness which is focused on the quality and innovation. It is the reason why we are curious about their future walk. There are 4 shops in Korea; Lotte Avenuel Worldtower branch, the Shilla Arcade, Daegu department store Plaza branch, and Busan Lotte department store. Tel 02-3213-2303

**Kate Jacket**

Kate jacket which is the steady seller and iconic item of COLOMBO is a single breasted design in medium length made of the luxurious cashmere and silk. It is very comfortable and soft to wear, and is an elegant and refined style with abundant color touch. Especially, the elegant color is what is made by the dyeing process that they have studied so long.

**STYLE CHOSUN (2)**



**The Dream Factory & The Dream Fabrics**

COLOMBO has gathered and stored the hair from over 50 farms all over the world. They have bought cashmere and camels' hair from Ulan Bator, Mongolia. The fibers in the region are very famous with a good quality. Cashmere which is extracted from goats in India, Mongolia, China, and Afghanistan is the highest-grade fiber. COLOMBO uses only the soft downy hair among fibers with a variety of natural colors such as white cashmere. The amount of the wool that can get from a goat for one year is about 500g, so it is high in scarcity and has high assessment. It is known for its warmness, coziness, soft texture, and elegant drape, and called 'The Diamond of Fibers'. Vicunas are a kind of camels and the smallest of them. They inhabit Bolivia, Chile, Peru,

and the Andes. They are herbivorous animals with reddish yellow, deep yellow brown and white long hair. They are high in scarcity because their hair can be cut every 3 years and the amount is very little. So, they have given high protection from CITES and have had a high value. The amount of the wool that can get from a vicuna for 3 years is about 250g, which has 6 times higher value than cashmere. Guanacos are also a kind of camels and very rare animals which inhabit mostly Southern America such as Peru and Argentina. Their red brown hair is used for weaving the best fabrics with a special shearing system. COLOMBO has raised them its own farm in Patagonia since 1990s, and has kept their hair the best.

Yangirs are Tibetan goats and inhabit Mongolia, Kazakhstan, and Kirgizstan. They have been taken on center stage as the next generation of textile because they have naturally golden hair and elegant sheen and their hair is softer than cashmere. In 11 FW, COLOMBO firstly developed and introduced yangir fabrics to high-end fashion market, and was given a great spotlight. COLOMBO doesn't kill and mistreat animals for the hair. It took 15 years to make people change their thought about this. The amount which is produced for one year is 300 tons of cashmere, 150 tons of camel, 100 tons of angora, 2 tons of vicuna, and 3 tons of ermain and chinchilla. Especially, it is vicunas that are on the list for endangerment because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and the demand is increasing. So, COLOMBO has put marks-of-origin on their vicuna goods.

Passion of the family,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 the CEO of COLOMBO, Roberto Colombo

**How did you come to be interested in noble fiber industry?** In 1970s when I was in college, cashmere was such an expansive fabric like vicunas' now. As my father ran a cashmere factory, I naturally got interested in it. At that time, the factory was so small, but I thought soon or later it could be grown up with upgrading the fabric. From the time, I planned a plenty of business on 'luxury yarn project'. In 1996, I visited Russia, Canada, Chile, and so on to find a cashmere substitute, and I thought I would use molting animals' hair to make luxury yarns.

**Now vicunas' hair has been given much attention like 1970s' cashmere.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most luxurious fabric?** I think the most luxury fabrics made of vicunas' hair, albino camels' hair etc. have already reached the top, so from now on, which processing technique is added will be the key point.

**How is COLOMBO noble fiber different from other yarn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material is where it is purchased from, and for cashmere hair, the quality is up to how thin and long it is. Animals' hair becomes tufted and thin in cold and dry weather. We, COLOMBO, buy good-quality cashmere hair in Alashan, Mongolia which is located at the north-eastern of China.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COLOMBO is very unique and special. The methods to dye cashmere or to add elasticity into cashmere with synthesizing span yarn are what COLOMBO first developed about 25 years ago.

**Is there a reason you divided the producing line into two regions which are Borgosesia and Ghemme?** Borgosesia is for fabrics and Ghemme is for ready-to-wear apparel that my wife, Kate, has made there since 20 years ago. 25 years ago Kate entered the company, she started accessory design at first and later she grew up to be a great fashion designer. The bestseller, Kate jacket, is the product named after her.

**Would you like to tell three of your tips to pick up good-quality cashmere?** Firstly, it is elegant luster and texture, secondly, not easy to wrinkle, and finally lint-free. That kind of cashmere usually doesn't lose the shape after washing.

**I heard you will expand your business to China in the next to Hong Kong, Tokyo, and Seoul.**

**What do you think about next Asian market?** My plan is to open two or three shops a year not in a hurry but with patience. Since I have pride of my company as a family business, I don't want to sell it (But, I don't know whether my son will do or not. Laughing). For years, China has had economic crises, but the best luxury goods have not been affected. Now customers have their own view to select good product, so it is not enough to attract customers just with marketing. Now is the era tha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marketing.

1. The main shop which is located at 33<sup>rd</sup> Via Dellar Spiga ST. in Milano. It is filled with items with high-quality fabrics as a prestige ready-to-wear apparel brand. A chandelier covered with cashmere.
2. COLOMBO created high-end fabrics with a variety of colors throughout innovative technology which have never been shown.
3. Knit which is being finished by handwork. It has become the cherished archive of COLOMBO.
4. Sample swatch which is inherited from Luigi Colombo who was the founder.
5. Kate jacket which is the iconic item. Its feature is soft texture and colors with a special dyeing technique.
6. The factory of COLOMBO in Borgosesia. About 400 workers have produced over 18,000km of fibers for one year in Borgosesia and Ghemme.
7. A variety of garments for 14 FW men's collection in the shop of COLOMBO.